

# 생명보다 12과 귀한 복음



## 배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7장 60절

## 읽을 말씀

사도행전 6장 8-15절,  
7장 59-60절

## 피울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행 4:29).

## 매일 이리더러

두렵고 힘든 상황에도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 호반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스데반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회가 당한 어려움 중에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돕는 공계를 둘러싼 성도들의 분란이 있었다. 사도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일곱 명의 '평신도 지도자(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일곱 명의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총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행 6:8).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지혜를 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다. 고소의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행 6:11). 스데반이 공회에 세워졌을 때,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거룩한 곳(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행 6:13)라고 증언하여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스데반은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고발당한 억울함과 거짓 증언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고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스데반이 보여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는 우리에게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 용기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12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이나 방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게 하자.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교재 ‘이름’에 적어 볼게요. (시간을 준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위기’라는 한자어는 위협의 ‘위’와 기회의 ‘기’라는 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것은 위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살펴볼게요. ‘오답 노트’는 위기가 가져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틀렸다는 ‘위험’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위험은 외부에서 온 것으로 핍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핍박으로 한 사람이 죽게 돼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또 다른 기회를 낳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점점 성장하였어요.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위기를 겪게 돼요. 내부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교회를 구성하는 히브리계 유대인들과 헬라계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점차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곱 사람을 택하여 세웠어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계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에요.

성경은 스테반을 소개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행 6:8)라고 말해요. 스테반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지도자였어요. 스테반은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와 벌인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는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되

고, 결국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재 ‘들음’의 그림을 보세요. 공회에 선 스테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을 준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스테반은 그들의 고발이 거짓된 것이며, 그들이 세운 증인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받는 자리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산헤드린 공회 :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통치) 기관으로 율법에 따라 70명으로 구성된다.

스테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와 성막, 솔로몬의 성전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것이었어요. 스테반이 받은 거짓고발인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은 바로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지적한 것이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행 7:51). 스테반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찢었지만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죽여요. 스테반이 죽기 직전 남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꼭 같았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참조 눅 23:34). 스테반의 순교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 끝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돼요.

## DEEP Q

### 1. 스테반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와요. 복음 전함은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돼요.

### 2. 스테반의 순교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흠어진 기회가 되었어요. 복음은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요. 비록 교회가 겪는 위기가 당시에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심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돌을 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스테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스테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위기에 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이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직면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소’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기회가 될까요. 적어 보세요.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위험	기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함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위축된다.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

스테반이 생명을 걸 만큼 복음은 가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테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한다.)

	YES	NO
여러분에게 복음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러분은 담대하게 전할 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여러분에게 복음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요?
2. 여러분은 담대하게 전할 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나요?
3.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스데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담대하고 힘 있게 복음을 전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온 세상에 외쳐요. (어떤 위험과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마친다.)

